

미국 푸드뱅크의 발전과 운영현황

Development and Operation Status of Food Bank in the United States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 들어가는 말

푸드뱅크(Food Bank)는 식품관련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여유식품을 기탁 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배분해주는 복지제도, 돈이 아닌 식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즉, 이용가능한 식품의 나눔을 통해 기탁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어 결식자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푸드뱅크는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전세계로 확대되었으며, 단순히 식품의 기탁, 배분,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등의 위기 발생 시 긴급식량지원, 아동 및 노인을 포함한 결식구제 및 결식인식개선 등으로 활동영역이 넓혀지고 있다.

저소득 결식자를 대상으로 한 푸드뱅크는 1965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America's Second Harvest라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축하여 보다 조직적

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후 America's Second Harvest는 혁신 차원에서 2008년 Feeding America로 변경되어 보다 체계적인 식품기부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푸드뱅크 사업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서울을 포함한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어 저소득 소외계층의 결식문제 해소에 기여해 왔으며, 사회복지 물적 자원 전달체계의 한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푸드뱅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와 기부에서 이용자 전달에 이르기까지의 전달체계가 미흡하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간의 기능 조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푸드뱅크가 처음으로 시작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 푸드뱅크의 발전과정과 전달체계, 프로그램, 재정 등의 운영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푸드뱅크 운영의 발전과 효율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푸드뱅크의 발전과정

1) 태동기(1965~1979년)¹⁾

미국의 푸드뱅크 사업은 1965년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거주하던 John van Hengel이 은퇴 후 Soup Kitchen²⁾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여유 음식물에 대해 기부를 권유하고, 이를 제공받아 결식 대상자에게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기탁되는 음식물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푸드뱅크인 St. Mary's Food Bank를 1967년 피닉스에 설립하게 되었다. John van Hengel과 소수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St. Mary's Food Bank는 첫 해 25만 파운드 이상의 음식물을 36개 지역 내 기관에 위탁·배분하였고, 이러한 푸드뱅크 사업은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 확대기(1979~2008년)³⁾

1975년 St. Mary's Food Bank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었고, 1976년 세금개혁법(Tax Reform Act)과 1979년 연방정부의 기금제공을 통해 식품의 기탁유도와 푸드뱅크가 전국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푸드뱅크

의 중앙조직인 'America's Second Harvest'가 설립되고, 지역단위 푸드뱅크 중심의 기탁 및 배분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America's Second Harvest는 'Foodchain'과의 합병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큰 음식 구제기관으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결식구제와 음식을 배분하는 조직이 되었다. 즉, America's Second Harvest는 전국적인 협조를 통해 대규모 기탁을 위한 정보교환소의 역할과 기탁 받은 식품의 저장, 배분, 푸드뱅크 기관간 조정 및 관리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John van Hengel은 1986년에 Food Bankin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 세계에 푸드뱅크를 알렸으며, 이후 2006년 Global Food Banking Network(GFN)로 명칭을 변경하여 아프리카, 동유럽, 아시아, 남미, 캐나다, 호주로 푸드뱅크 사업을 확대하였다.

Global Food Banking Network는 아르헨티나(Red Argentina de Bancos de Alimentos), 멕시코(Asociacion Mexicana de Bancos de Alimentos), 캐나다(Food Banks Canada), 미국(현 Feeding America)의 4개 푸드뱅크 네트워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의 푸드뱅크 협력망 강화를 위한 국제 민간 비영리기관이다.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가나, 과테말라, 인도,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멕시코,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영국, 미국 등

1) St. Mary's Food Bank Alliance 홈페이지(<http://www.firstfoodbank.org/>)에서 인용함.

2) Bread Line 혹은 Meal Center라고도 불리며, 결식자들을 위해 무료 또는 저가로 음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단체로, 종교단체 또는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됨.

3) St. Mary's Food Bank Alliance 홈페이지(<http://www.firstfoodbank.org/>), Global Food Banking Network 홈페이지(www.foodbanking.org)에서 인용함.

총 18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 회원국 푸드뱅크간 지원 및 정부단체와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도모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FN의 세부업무를 살펴보면, 푸드뱅크의 개념을 공유하면서 회원국 푸드뱅크의 사업운영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모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미국 텍사스 주의 샌 안토니오에 위치한 “H-E-B/GFN Food Bank Leadership Institute”에서 각국 푸드뱅크 대표, 식품산업 관계자 대표, 세계식량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푸드뱅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결식 해소를 위한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회원국별 푸드뱅크 사업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예산과 직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금지원, 교육·훈련, 식품기탁 지원,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3) 발전기(2008년~현재)⁴⁾

2008년 9월, America's Second Harvest는 'Feeding America'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30년간 결식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America's Second Harvest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미국 내 결식에 대한 광범위한 편견에 직면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Feeding America에서 'Feeding'은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한편,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성장해 온 Feeding America는 현재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 본부(national office)를 두고, 워싱턴 D.C에 지사(satellite office)에서 17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50개 주의 200개 이상의 푸드뱅크(약 5,500명 직원)가 Feeding America의 회원 기관이며, 지역 자선기관은 약 6만 1천개에 이르고, 7만개의 결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결식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Feeding America의 시카고 본부는 경영(Operations), 자선(Philanthropy), 정부관계(Government Relations), 재정(Finance)의 주요 분과로 구성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분과별로 하위 부서를 포함하고 있다. Feeding America를 운영하는 7대 가치관(Statement of Values)은 존중(Respect), 책임과 신뢰(Stewardship and Accountability), 협력(Collaboration), 시급성(Urgency), 서비스(Service), 청렴(Integrity), 다양성(Diversity)이다.

3. 푸드뱅크 운영실태⁵⁾

1) 푸드뱅크 전달체계

미국 푸드뱅크는 중앙조직인 Fee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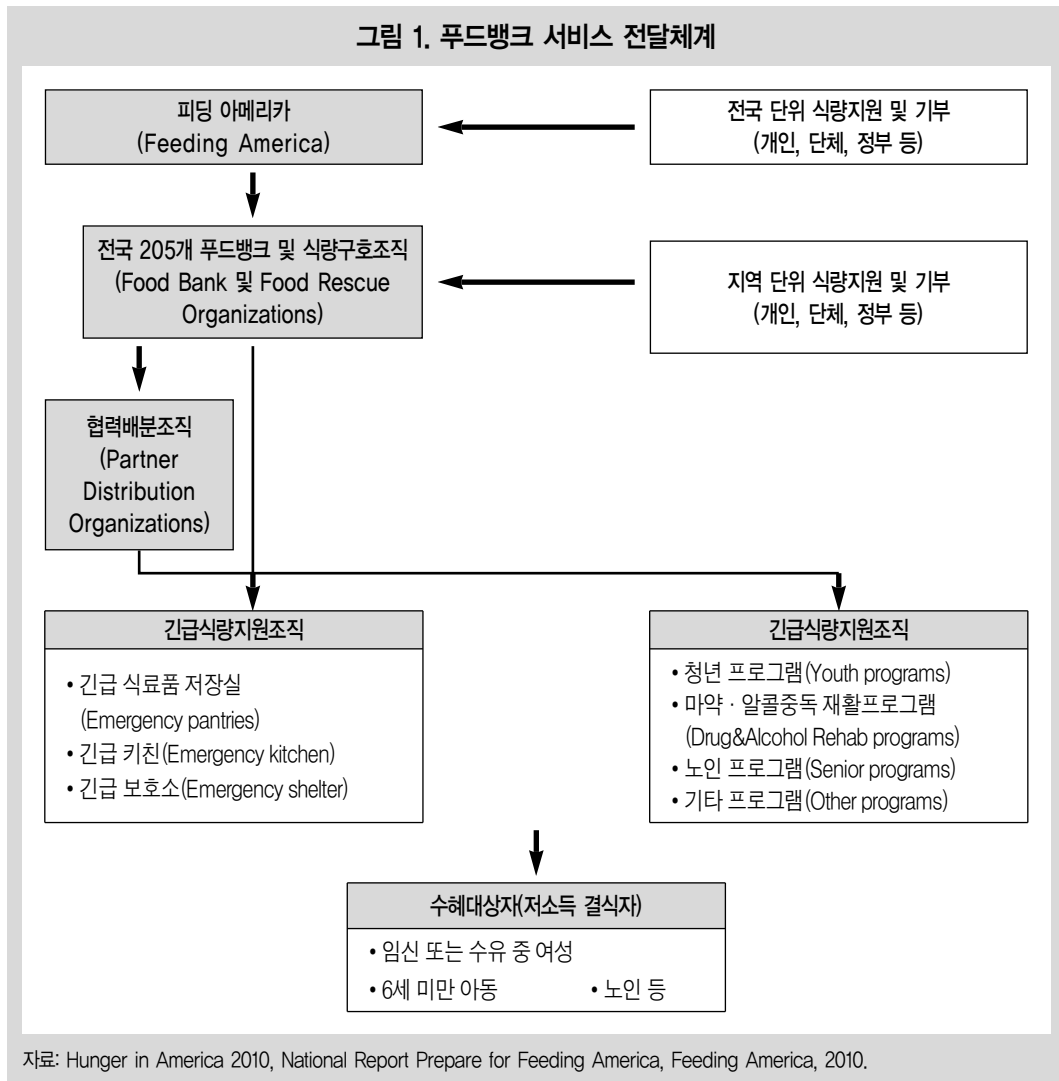
4) Feeding America 홈페이지(<http://feedingamerica.org>)에서 인용함.

5) Feeding America 홈페이지(<http://feedingamerica.org>)에서 인용함.

America와 각 주에 산재해 있는 205개 지역 푸드뱅크간의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푸드뱅크는 식품의 관리, 저장, 배분 현황에 대해 Feeding America 직원과 식품산업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시된 바와 같이, 먼저 Feeding America에서 전국의 식료품업체, 정부기관, 개인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음식 및 식품을 기탁 받아 미국 전역의 푸드뱅크에 전달한다. 단, 식품이 가장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또한 생산자, 제조자, 유통업체로부터 기탁될 식품에 관한 정보는 Feeding America를 통해 총괄

푸드뱅크 서비스 전달체계는 [그림 1]에 제



적으로 수집된 후 기탁업체와 가장 인접해 있는 각 지역별 푸드뱅크를 연계시켜 기탁하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 각 주의 푸드뱅크에서는 제공 받은 음식 및 식품을 저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원기관에 배분한다. 그리고 자선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 지원기관에서는 최종적으로 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탁음식물을 제공한다.

각 주의 푸드뱅크 및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Feeding America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금, 음식 기탁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결식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결식단체들은 지역 내의 요구에 부응하여 조직된 풀뿌리 조직이다.

미국의 푸드뱅크는 기탁량이 이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제2의 식품산업이라 불리며 대기업 식품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다. 즉, 배분이 안된 기탁품을 보관하기 위한 대규모의 보관창고

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 보관창고는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재고량 파악 및 수송을 위한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관창고가 지켜야 할 산업규정을 준수하고 있다⁶⁾.

Feeding America는 식품확보 및 배분 이외에도 기금모금, 우수사례 공유, 옹호 및 격려 활동을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에서의 협력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세미나 개최, 직원연수, 각 푸드뱅크 운영의 관리·감독, 지속적인 결식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총괄적인 업무는 시카고에 위치한 Feeding America 본부에서 담당한다. 특히 online Hunger Action Center를 통해 연방정부, 주 정부, 지역사회 단위의 결식관련 법, 정책에 관한 감시 및 옹호 활동과 결식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단위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푸드뱅크 역할

구분	지역단위 역할	중앙단위 역할
식품확보 (Securing Food)	• 지역사회의 제조업체, 소매업체, 농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식품 확보	• 전국의 대형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식품 확보
기금모금 (Raising Funds)	• 지역사회의 기업, 재단, 및 개인기부자로부터의 기부를 통한 자원 마련 및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기업, 재단, 및 개인기부자로부터의 기부를 통한 자원 마련 및 지역푸드뱅크 발전을 위한 중자돈으로서 기부금 제공
음식배분 (Distributing Food)	• Feeding America와 지역사회에서 제공 받은 음식물을 지역기관 시스템을 통해 배분	• 강력한 물류시스템을 통해 전국에서 기탁 받은 음식물을 가장 필요한 푸드뱅크부터 우선순위로 배분

6) 정기혜·김정근·이성국·김성경(2000).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표 1〉 계속

구분	지역단위 역할	중앙단위 역할
우수사례 공유 (Sharing Best Practices)	• 다른 연계 기관과 정보공유 및 식품안전 기준, 재정책임, 효율성 유지	• 입증된 프로그램 수행의 격려 및 식품안전 기준, 재정책임, 효율성 유지
옹호 및 격려 (Advocating and Inspiring)	• 지역차원에서 인식개선 운동 및 홍보활동 전개	• 전국차원에서 인식개선 운동 및 홍보활동 전개

자료: Feeding America(<http://feedingamerica.org>)

미국 푸드뱅크 운영시스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푸드뱅크 기탁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민간부문은 시설,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농수산부(U. 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다양한 식품지원과 식품배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푸드뱅크에의 기탁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나 개인 모두 가능하며, 기탁품은 식품, 생활용품, 성금(온라인 및 신용카드 포함)이 해당된다. Feeding America는 비영리단체이므로 기탁자들은 기탁품에 대해 모두 세제혜택을 받는다. 분배는 무상이 원칙이나 일부 푸드뱅크는 수혜자에게 일부 자부담을 부과하여 푸드뱅크 운영비로 활용하기도 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Kids Cafe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식료품 저장실에서 기탁 식품을 재포장하거나, 자선단체에 기탁식품을 배달하거나, 또는 시카고 본부에서 사무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지역사회 푸드뱅크를 통해 자원봉사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2) 연계 프로그램 사례

Feeding America에서는 현재 대표적으로 5개의 전국 단위 연계 프로그램(network programs)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Backpack Program

백팩 프로그램은 주말 또는 방학기간 중의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주말 전날 또는 방학(휴일) 전날 백팩(가방)을 아동에게 나누어 주며, 주말 또는 방학(휴가)기간 동안에 제공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아동의 가방에 음식을 담아 집으로 가져가게 한다. 음식은 아동이 좋아하고, 잘 부패하지 않으며,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6년 Feeding America의 전국 위원회는 공식적인 전국 프로그램 승인하였다. 2009 재정연도 기간에 140개 푸드뱅크에서 3,600개의 백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9만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 재정연도에는 5백 8십만 팩 이상의 음식을 아동들에게 제공하였다.

백팩 프로그램은 한 결식학생이 위장통증과 현기증을 호소하며 학교 간호사를 찾아왔고, 그녀가 Arkansas Rice Depot이라는 비영리 결식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역 푸드뱅크에서는 학생들에게 식료품을 담아갈 수 있도록 평범한 가방을 나누어주었는데, 이는 결식아동이 음식을 받아간다는 식의 부정적인 낙인을 피하기 위한 배려이다. 성장기 아동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일부 백팩 프로그램은 주말이나 방학기간 중에 무상 또는 저가의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아동 및 그 형제·자매들에게도 여유분의 음식을 제공한다.

(2) Disaster Relief

Feeding America는 미국 적십자와 구세군을 포함한 재난구호 협력조직인 National Voluntary Relief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NVOAD)의 회원으로서 NVOAD에서 운영하는 식량공급소를 통해 재난지역의 긴급구호 및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처음 시작한 1989년 미국 남부의 여러 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휴고와 샌프란시스코 및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지역에서 일어난 로마 프리에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재난구호서비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로 Feeding America의 200여개 푸드뱅크들은 주요한 재난 지원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5년간 1억 파운드 이상의 긴급식량과 구호물품을 재난을 당한 개인과 가족들에게 제공해왔다. Feeding America는 정기적으로 협력기업 및 기부자들과 재난 구조를 위한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3) Kids Cafe

Kids Cafe는 1989년 조지아 주의 사바나 지역에서 두 명의 어린 형제가 기아상태로 발견된 사건으로 인하여 조지아 주의 푸드뱅크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1993년에 Feeding America의 전국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Boys & Girls Clubs, 교회 또는 학교 등 아이들이 모이는 곳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며, 식사 이외에도 믿을 수 있는 직원의 감독 하에서 아이들이 교육, 레크리에이션,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1,600개 이상의 Kids Cafes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1천 6백만명 이상의 아이들은 집에 음식이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 2010 재정연도 기간에 약 천만개의 식사와 4백만개의 간식이 122,000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제공되었다.

이 외에도 2009년 School Pantry Program이 공식적으로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현재 전국의 37개 푸드뱅크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교 식료품 저장실은 저소득층 아동 및 그 가족에게 보다 쉽게 음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다.

(4) National Produce Program

Feeding America는 푸드뱅크의 신선식품 관리 강화를 위하여 National Produce Program을

실시하였다. '신선식품 Initiative'로 알려진 본 프로그램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푸드뱅크에서 배분하는 하나의 식품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Feeding America와 협력관계에 있는 재배자, 포장자, 업계 전문가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영양원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푸드뱅크에서 가공과정을 통해 슈퍼마켓이나 기타 소매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처럼 포장된 상품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보다 빨리 신선식품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일관되게 신선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속 식품배분 보조금'과 '냉장운송 보조금'을 통해 식품의 운송가격을 절감하게 되었고 부패할 수 있는 식품을 신선식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더 많은 영양식품을 배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Feeding America는 매주 평균 2백 2십만 파운드의 기탁 및 가공신선식품을 전달하였다. 2008년 약 3억 5천만 파운드의 신선식품이 푸드뱅크를 통해 배분되었다.

(5) Relief Fleet

Feeding America는 수백만 달러를 매년 전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에 투자한다. 이와 같은 막대한 운송비용은 종종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기탁 받는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Relief Fleet는 운송비용 절감을 위하여 전체 푸드뱅크에 무상 또는 상당한 저가로 화물운송을 기부하는 것이다. 즉, 운송업체들은 Feeding America 본사

와 협의하여 화물트럭에 기탁물품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기탁물의 배송 및 수령은 운송경로와 기부물품을 받을 수 있는 푸드뱅크 접근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2009 재정연도 기간 동안 Relief Fleet 프로그램을 통해 1천 7십만 파운드의 기탁 식품이 146개 푸드뱅크에 무료로 전달되었다. 또한 트럭한 대분의 기탁 식품으로 27,000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고, 운송비용에 1달러면 절약해도 결식자에게 7끼니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해 Feeding America 푸드뱅크에서는 운송비용에서 \$411,000을 절약하였고, 이 절약한 금액은 결식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되었다.

3) 재정운용 현황

Feeding America의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0 재정연도 기준 전체 지출액 중 96.1%는 프로그램 서비스(program services), 3.9%는 지원 서비스(supporting services)에 사용되었다. 프로그램 지출비용은 9천 4백만 달러는 현금이고, 5억 8천 4백만 달러는 현물기부(음식기부, 식품 및 생필품기부)이다.

총 지출액은 \$705,942,000이고, 기부가 이루어진 상품 및 서비스가 이 중 83%인 \$584,043,000이며, 직원 임금은 3%인 \$21,315,000이다. 전체 지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품 확보로 89.1%이며, 다음으로 회원서비스 5.4%, 기금모금 2.6%로 대부분 식품 기탁업무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Feeding America 사업운영비 지출 비중(2010 재정연도 기준)

(단위: %, 천 달러)

구분	지출항목		비중	지출금액
프로그램 서비스	회원서비스 (Member Services)	회원서비스(Member Services)	5.4	38,430
		식품확보(Food Procurement)	89.1	628,773
	비회원서비스 (Non-member Services)	인식개선 및 교육활동(Public Awareness & Policy)	0.8	5,314
		공공 프로그램 및 정책(Public Programs & Policy)	0.5	3,763
		연구지원(Research & Analysis)	0.3	2,043
지원 서비스	경영지원(Management & General)		1.3	9,336
	기금모금(Fund Development)		2.6	18,283
합계			100.0	705,942

자료: 2010 Annual Report, Feeding America.

Feeding America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기부액은 \$25,284, 기업 기부액은 \$43,229, 재단을 통한 기부액은

\$14,379, 기업홍보액은 \$12,660으로 모금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은 \$95,552이다. 또한 각종 물품과 서비스 등의 기부액은 \$584,043에 이른다.

표 3. Feeding America 수입 구조(2010 재정연도 기준)

(단위: 달러)

구분	지출항목		지출금액
공적 지원	모금활동(Fundraising)	개인 기부(Individual contributions)	25,284
		기업 기부(Corporate contributions)	43,229
		재단(Foundation)	14,379
		기업홍보(Corporate promotions)	12,660
	상품 · 서비스 기부(Donated goods and services)		584,043
소계			679,595
수입	회원비(Member fees)		2,687
	컨퍼런스 참가비(Conference fees)		761
	기타 수입(Other revenue)		589
	식량확보 수입(Food procurement revenue)		34,938
	투자 수입(Investment income)		304
	운영 지정 투자수익(Investment return designated for operations)		628
	제한해제 순자산(Net assets released from restriction)		-
	소계		39,907
합 계			705,942

자료: 2010 Annual Report, Feeding America.

이 밖에도 식량확보 수입 \$34,938 등 모금활동과 회원비 등을 통한 총수입은 \$719,502이다.

4. 푸드뱅크 이용 현황

1) 이용자 현황

Feeding America에서 발표한 “Hunger in America 2010”에 의하면, 3천 7백만명의 미국인들은 매년 Feeding America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중 아동은 1천 4백만명, 노인은 약 3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매주 약 5백 7십만명의 사람들이 Feeding America로부터 긴급식량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매주 약 4백5십만

명이 지원받던 2006년보다 27% 증가한 수치이다. 본 통계는 Soup kitchen이나 Food pantries와 같은 긴급식량지원센터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Kids cafe나 노인센터에서 지급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동의 경우 1천 4백만명이 Feeding America를 이용하였으며, 3백만명은 5세 이하이다. 노인 수혜자는 매년 3백만명 수준으로 18.6%는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한명 이상 있으며, 이러한 가구의 52%(1백 2십만 가구)는 적정수준의 식량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Feeding America를 이용하는 전체 대상자 중 8%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Feeding America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48%는 농촌 또는 도시 교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 4. 연령, 성별, 국적별 이용자 현황(2009년)

(단위: %, 명)

구분		식품품 저장실(Pantry)	키친(Kitchen)	보호소(Shelter)	전체 프로그램
연령	0~3세	5.5	3.9	4.3	5.3
	4~5세	3.3	2.3	2.0	3.2
	6~17세	30.8	18.9	13.3	29.2
	18~29세	13.4	13.9	16.3	13.5
	30~49세	24.1	34.5	41.2	25.6
	50~64세	14.8	18.8	20.8	15.4
	65세 이상	8.0	7.7	2.0	7.9
소계(수)		100.0(119,981)	100.0(24,692)	100.0(7,630)	100.0(152,303)
성별	남성	47.2	56.6	68.3	48.7
	여성	52.8	43.4	31.7	51.3
	소계(수)	100.0(115,883)	100.0(23,858)	100.0(7,328)	100.0(147,069)
국적	미국시민	88.4	93.3	96.2	89.2
	외국국적자	11.6	6.7	3.8	10.8
	소계(수)	100.0(115,883)	100.0(23,858)	100.0(7,328)	100.0(147,069)

자료: Hunger in America 2010, National Report Prepare for Feeding America, Feeding America, 2010.

긴급식량지원조직(Pantry, Kitchen, Shelter)을 통한 2009년의 이용자 현황을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식료품 저장실 이용자는 6~17세가 30.8%로 가장 높고, 키친과 보호소의 경우 30~49세가 각각 34.5%, 41.2%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6~17세(29.2%), 30~49세(25.6%), 50~64세(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키친과 보호소 이용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식료품 저장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이용률이 높았다. 국적별로는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이용자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식료품 저장실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 국적 소지자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전체적으로 미혼인 경우가 28.0%로 가장 많고, 유배우(25.9%), 이혼

(20.7%), 사별(10.5%)의 순이었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 키친과 보호소 이용률이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이용자의 비율이 60% 수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다.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38.7%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미만의 학력 소지자도 34.3%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로 저학력층의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는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넘는 73.6%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관 특성상 보호소를 통해 식품을 제공받는 이용자의 비취업상태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표 5. 결혼상태별, 학력수준별 이용자 현황(2009년)

(단위: %, 명)

구분		식료품 저장실(Pantry)	키친(Kitchen)	보호소(Shelter)	전체 프로그램
결혼 상태	유배우	29.1	13.8	7.5	25.9
	사실혼	6.8	6.2	1.8	6.5
	사별	11.4	8.1	3.2	10.5
	이혼	20.2	22.1	24.5	20.7
	별거	8.3	7.5	12.0	8.4
	미혼	24.1	42.2	50.9	28.0
	소계(수)	100.0(42,441)	100.0(13,552)	100.0(5,092)	100.0(61,085)
학력 수준	고졸 미만	35.5	30.0	28.9	34.3
	고졸	38.4	39.3	41.6	38.7
	전문·기술학교졸업	3.9	3.7	3.4	3.8
	2년제대졸	16.1	20.2	20.4	16.9
	4년제대졸 이상	6.2	6.9	5.6	6.2
	소계(수)	100.0(42,441)	100.0(13,552)	100.0(5,092)	100.0(61,085)

자료: Hunger in America 2010, National Report Prepare for Feeding America, Feeding America, 2010.

표 6. 취업상태별 이용자 현황(2009년)

(단위: %, 명)

구분	식료품 저장실(Pantry)	키친(Kitchen)	보호소(Shelter)	전체 프로그램
취업(풀타임)	13.1	11.7	9.1	12.8
취업(파트타임)	13.6	13.7	13.3	13.6
비취업	73.3	74.6	77.6	73.6
소계(수)	100.0(77,335)	100.0(19,530)	100.0(5,647)	100.0(102,512)

자료: Hunger in America 2010, National Report Prepare for Feeding America, Feeding America, 2010.

소득은 근로, 정부의 복지지원, 기타 정부지원, 연금 등이며, 푸드뱅크 이용자들의 전년도(2008년) 연간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소득은 \$13,000 수준으로 \$5,000~10,000 미만이 2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000~15,000(20.3%) 미만, \$5,000 미만(14.2%)의 순으로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았다.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8.0%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호

소에서 생활하는 이용자의 경우 24.4%로 높은 수준이었다. 즉, 연방정부 빈곤선 기준 130% 이하의 저소득층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력수준과 소득수준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푸드뱅크 이용자 중 90.8%의 고졸 미만 학력자와 85.2%의 고졸자는 수입이 전혀 없거나 연방 빈곤선 13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5%의 대졸자는 소득이 없

표 7. 연간 소득수준별 이용가구 현황(2008년)

(단위: %, 가구, 달러)

구분	식료품 저장실(Pantry)	키친(Kitchen)	보호소(Shelter)	전체 프로그램
소득 없음	5.8	13.6	24.4	8.0
\$5,000 미만	12.1	21.5	25.7	14.2
\$5,000~10,000 미만	28.3	24.7	18.0	27.2
\$10,000~15,000 미만	21.7	16.3	10.4	20.3
\$15,000~20,000 미만	11.4	8.1	5.2	10.6
\$20,000~30,000 미만	11.9	7.7	5.2	11.0
\$30,000~40,000 미만	4.9	4.2	3.9	4.8
\$40,000~50,000 미만	2.0	1.4	3.3	2.0
\$50,000 이상	1.8	2.4	2.9	2.0
소계(수)	100.0(42,441)	100.0(13,552)	100.0(5,092)	100.0(61,085)
연간 평균소득	13,550	11,260	10,030	13,030

자료: Hunger in America 2010, National Report Prepare for Feeding America, Feeding America, 2010.

거나 연방 빈곤선 130% 이하였다. 2008년, 연방 빈곤선 131%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이는 이용자는 고졸 미만 학력자의 경우 9.2%에 불과하였으며, 대졸자의 경우 이보다 높아 34.5%로 나타났다.

2) 이용자 만족도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식품의 양, 다양성, 질과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정도 자주 존중감을 갖고 이용자를 대하는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1%가 식품량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여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90.1%는 식품의 다양성에 만족하였고, 92.7%는 식품의 질에 만족하였다. 83.4%는 서비스 제공자가 식품을 배분할 경우 존중하는 태

도로 이용자를 대한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이용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보호소 이용자의 경우 식품량, 식품 다양성, 식품 질, 서비스 수준에서 모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 기탁 식품 출처

각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출처를 살펴보면, 푸드뱅크가 역시 이들 기관이 식품을 기탁받는 주요 출처임을 알 수 있다. 식료품 저장실 75.5%, 키친 49.6%, 보호소 41.1%의 순으로 식품이 기탁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를 통해 식품을 제공받고 있다. 정부 프로그램 중에서는 긴급식량지원(TEFAP)과 보조식품지원프로그램(CAFP)의

표 8. 이용자의 학력수준별 연간 소득수준(2008년)

(단위: %, 명)

2008년 소득수준 (연방정부 빈곤선)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전문· 기술학교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이상
소득 없음	7.9	9.0	8.4	6.4	6.0	5.7
50% 이하	29.0	33.4	30.0	22.1	23.4	18.7
51~75%	20.1	22.7	20.1	17.3	18.3	13.5
76~100%	16.7	17.4	16.1	18.7	16.5	14.9
101~130%	10.3	8.2	10.6	11.6	12.2	12.7
소계	84.0	90.8	85.2	76.2	76.3	65.5
131~150%	4.5	3.4	4.6	5.3	5.8	5.2
151~185%	4.2	2.5	3.7	7.8	6.3	8.8
186% 이상	7.3	3.3	6.4	10.8	11.6	20.5
소계	16.0	9.2	14.8	23.8	23.7	34.5
계(수)	100.0(55,315)	100.0(18,403)	100.0(21,313)	100.0(2,338)	100.0(10,115)	100.0(3,146)

자료: Hunger in America 2010, National Report Prepare for Feeding America, Feeding America, 2010.

표 9. 푸드뱅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2009년)

(단위: %, 명)

구분	식료품 저장실(Pantry)	키친(Kitchen)	보호소(Shelter)	전체 프로그램
식품의 양				
매우 만족	60.4	61.9	48.7	60.0
만족	32.2	30.2	36.9	32.1
불만족	5.7	5.3	8.7	5.8
매우 불만족	1.7	2.5	5.8	2.1
식품의 다양성				
매우 만족	57.5	58.0	39.3	56.6
만족	33.5	31.3	39.8	33.5
불만족	6.9	7.1	12.2	7.2
매우 불만족	2.0	3.7	8.8	2.7
전반적인 식품의 질				
매우 만족	62.7	60.2	43.6	61.3
만족	31.3	30.1	37.6	31.4
불만족	4.8	6.2	11.9	5.4
매우 불만족	1.3	3.5	6.8	1.9
직원의 배분서비스(존중)				
매우 만족	84.9	79.3	71.2	83.4
만족	5.8	9.7	16.0	6.9
보통	2.6	5.8	10.2	3.5
불만족	0.4	1.3	1.6	0.6
매우 불만족	6.3	4.0	1.0	5.7
계(수)	100.0(42,441)	100.0(13,552)	100.0(5,092)	100.0(61,085)

자료: Hunger in America 2010, National Report Prepare for Feeding America, Feeding America, 2010.

비중이 높았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식료품 저장실의 경우 종교단체로부터의 식품 기탁 비중이 높았던 반면, 보호소는 기관에서 직접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4) 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재 식품을 배분하고 있는 이들 기관의 월급

을 받고 있는 직원과 자원봉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식료품 저장실의 경우 67.7%, 키친은 42.0%, 보호소는 15.3%가 유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었다. 본 조사결과는 조사 전 일주일간의 유급직원수를 의미한다. 평균 유급직원 수는 식료품 저장실 1명, 키친 3명, 보호소 9명으로 보호소의 경우 6명 이상의 유급직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 기탁식품 출처(2009년)¹⁾

(단위: %, 개소)

구분	식료품 저장실(Pantry)	키친(Kitchen)	보호소(Shelter)
푸드뱅크 ²⁾	75.5	49.6	41.1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	32.8	23.8	21.7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54.4	33.5	31.4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 (FDPIR)	1.9	1.5	1.7
교회 등 종교단체	80.6	64.4	58.1
지역의 소매상인 또는 농민 기부	46.3	48.2	49.0
지역의 푸드 드라이브 ³⁾ (예: 보이스카우트)	54.5	31.9	40.7
기관에서 구입한 식품	58.0	75.1	81.4
기타	21.1	18.7	21.1
N	23,842	6,064	3,728

주: 1) 중복응답임.

2) 푸드뱅크로부터 받는 기탁식품의 평균 비중을 의미함.

3) 푸드 드라이브는 저소득 결식자들을 위해 푸드뱅크 등으로 보낼 음식을 모으는 행사를 의미함.

자료: Hunger in America 2010, National Report Prepare for Feeding America, Feeding America, 2010.

표 11. 유급직원 현황(2009년)

(단위: %, 개소)

구분	식료품 저장실(Pantry)	키친(Kitchen)	보호소(Shelter)
직원 없음	67.7	42.0	15.3
1명	15.0	17.9	7.2
2명	7.6	12.4	7.7
3명	3.4	7.6	6.2
4명	2.0	5.0	5.7
5명	1.2	3.1	5.1
6~10명	1.9	7.1	22.9
11명 이상	1.2	4.9	29.8
계(수)	100.0(23,842)	100.0(6,064)	100.0(3,728)

자료: Hunger in America 2010, National Report Prepare for Feeding America, Feeding America, 2010.

조사 전 일주일간의 자원봉사자 수는 식료품 저장실의 경우 7.4%, 키친은 12.9%, 보호소는 28.2%, 기타 프로그램 24.2%가 없다고 응답하

여 높은 자원봉사자 의존율을 볼 수 있다. 평균 자원봉사자 수는 식료품 저장실 10명, 키친 16명, 보호소 9명, 기타 기관 18명이었다.

표 12. 자원봉사자 수(2009년)

(단위: %, 명)

구분	식료품 저장실(Pantry)	키친(Kitchen)	보호소(Shelter)	기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없음	7.4	12.9	28.2	24.2
1명	4.8	3.2	6.4	5.7
2~3명	17.8	12.3	18.2	15.1
4~6명	23.0	18.2	17.4	16.9
7~10명	19.1	16.9	10.7	12.6
11~20명	17.7	17.1	9.1	11.9
21~50명	8.3	13.3	7.0	8.9
51명 이상	1.8	6.0	3.0	4.7
계(수)	100.0(23,842)	100.0(6,064)	100.0(3,728)	100.0(28,611)

자료: Hunger in America 2010, National Report Prepare for Feeding America, Feeding America, 2010.

조사 전 일주일간의 자원봉사자의 평균 자원 봉사 시간은 식료품 저장실 39시간, 키친 60시간, 보호소 49시간, 기타 기관 33시간이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식료품 저장실은 11~25시간(21.2%)과 1~5시간(20.4%)의 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많았고, 키친은 큰 격차는 없었으나 11~25시간(18.0%)과 26~50시간(16.9%), 보호

소와 기타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없어 자원 봉사시간이 없음이 각각 28.2%, 24.2%로 나타났다. 따라서 키친과 식료품 저장실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반면 보호소는 자원봉사자보다는 유급직원을 통한 업무 의존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시간(2009년)

(단위: %, 개소)

구분	식료품 저장실(Pantry)	키친(Kitchen)	보호소(Shelter)	기타 프로그램
없음	7.4	12.9	28.2	24.2
1~5시간	20.4	12.8	9.6	11.0
6~10시간	16.4	12.4	10.5	11.2
11~25시간	21.2	18.0	17.3	16.2
26~50시간	15.8	16.9	14.2	13.6
51~100시간	10.9	12.9	9.6	10.1
100시간 이상	8.1	14.4	10.7	13.8
계(수)	100.0(23,842)	100.0(6,064)	100.0(3,728)	100.0(28,611)

자료: Hunger in America 2010, National Report Prepare for Feeding America, Feeding America, 2010.

5. 맺음말

이와 같이 미국 푸드뱅크의 조직체계, 운영현황, 관련 프로그램, 이용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중앙 및 지역단위 푸드뱅크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간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각 주에 산재해 있는 지역사회 푸드뱅크에서는 독립적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의 상위조직에서 식품 기탁 및 배분, 기탁정보를 총괄하고 지역단위 푸드뱅크에 적합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중앙-지역 푸드뱅크의 기능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식품이 적기적소에 배치되고 푸드뱅크 운영체계가 관리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고, 민간부문은 시설,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인력을 제공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기부량은 증가하며, 자원봉사도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둘째,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푸드뱅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는 푸드뱅크 이외에도 복지시설, 식량지원기관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푸드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유급인력과 자원봉사 인력을 적절히 배치·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식품관련 업체 또는 운송업체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보다 비용효과

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National Produce Program’이나 ‘Relief Fleet’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푸드뱅크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되고 있다.

셋째, 아동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선택하여 결식아동의 푸드뱅크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예방하고 있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영양식단은 필수요소로 아동에게 푸드뱅크 관련 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거나, 아동의 가정에 직접적으로 음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가방에 음식을 넣어주는 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배려한 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쉽게 모이는 곳에 키즈 카페를 운영하여 식사와 간식을 제공받고 돌봄 및 교육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단순히 결식아동에 대한 식량 제공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인 방식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속적으로 결식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내 결식자는 감소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Feeding America는 지역사회와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캠페인과 함께 관련법의 제·개정, 정책개발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식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Advocacy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푸드뱅크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기탁 물품 및 식품의 증대, 자원봉사 인력의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 정보체계화 등을 구축하고 있다. 